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음 영 지 +

(충남대학교, BK 21 PLUS 프로젝트)

박지 은

(충남대학교, 뇌과학연구소)

손 선 주

(청주대학교)

엄 진 섭

(충남대학교, 뇌과학연구소)

손 진 훈**

(충남대학교, 뇌과학연구소)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Maxwell-McCaw와 Zea(2011) 의 농인 문화적응 척도(Deaf Acculturation Scale)를 국내 농인에 적절하게 번안하여 예비문항을 만들었다. 척도는 농문화적응과 청인문화적응,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분하여 농인들의 문화적응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농문화적응 하위척도 25문항, 청인문화적응 하위척도 25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척도가 개발되었다. 농문화적응 하위척도 4개의 요인, 청인문화적응 하위척도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a는 농문화적응 하위척도가 .93이었고, 청인문화적응 하위척도가 .93로 높은 값을 보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농문화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연령, 청각장에 시기와 장에 급수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공존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집단 자아존중감 척도(Collective Self-Esteem Scale)와의 상관분석으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논의에는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농, 청각장애, 농문화, 농문화적응, 농인 문화적응 척도, 척도 타당화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No. NRF-2006-2005087)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 교신저자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 혹은 집단이 접촉하였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변화이며, 문화적응을 경험하는 집단은 그들이 본래 소유하고 있는 원문화(original culture)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새로운 사회의 주류문화(host culture)를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문화적응 방식이 달라 진다(Berry, 1997; 2005).

이 현상은 농인(청각 장애자, Deaf)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농인들은 '농문화(Deaf culture)'를 형성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소리를 듣고 말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공유하는 청인문화(hearing culture)와는 구별이 된다. 이로 인하여 두 문화를 대하는 방식은 농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순옥, 2007; 조용순·권요한, 2009).

예를 들면, 성인이 되어 청력을 손실하거나 구화(lip-reading)를 사용하는 농인들 중에는 청인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도 농문화에 소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이 있으며, 농인 부모들 중에는 자신의 농인 자녀가 농문화가 아닌 청인문화에 소속되기를 원하기도 한다. 반면에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들(hearing children of Deaf adults: CODA)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는 농인들과 수화로 대화하며 농문화에 소속되어 수화통역사 혹은 농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또한, 어떤 농인들은 그들의 농정체성(Deaf identity)을 유지하면서 청인문화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기도 한다 (김경진, 2006; 김순옥, 2007).

농인에게 문화적응의 문제는 중요하다. 농문화에 소속되어 있는 농인이 청인문화를 수용한다면 농인에게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농인이 청인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통합성,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상실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유발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주요한 심리적 부적응 문제로는 불안, 우울, 소외감, 신체화 증상, 정체감 혼란 등이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건강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조용순·권요한, 2009: Berry and Kim, 1988). 이 때문에, 농문화에 소속되어 있지만 청인문화에적응해야 하는 농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점과 단점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응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농인의 문화적응을 이해하는 것은 농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농인의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Maxwell-McCaw and Zea, 2011).

본 연구는 국내 농인을 위한 최적화된 문화적응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 할 척도는 농인의 문화적응을 측정하여 농문화와 청인문화 사이에서 그들이 겪는 행동, 가치, 태도의 변화를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

2. 주요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1) 농인과 농문화

김현철 외(2012)는 '농인'의 의미를 정리하였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은 청각 장애인이 아닌 '수화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수화를 언어로 인식하면서 농인을 언어적 소수집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농인들도 스스로를 장애인이 아닌 한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의 민족으로 봐주기를 사회에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농인은 그들만의 문화인 '농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다. 농문화는 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농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양식으로 시각에 기초한 독특한 문화이다(강주해, 2002; 박동진, 2012; Markowicz and Woodward, 1978; Gannon, 1981; Padden and Humphries, 1988). 그들의 문화를 살펴보면, 청인은 상대를 부를 때 음성으로 부르지만 그들은 어깨를 두드린다. 자신을 소개할 때 청인은 이름을 음성으로 말하는데 그치지만 그들은 이름을 이야기한 다음 수화 이름(얼굴 이름, Name Sign)1), 출신 지역 및 학교를 자연스럽게 소개한다. 농 학교의 수업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과 농인이 사는 집 초인중에서는 소리 대신 경광등이 깜박거린다. 즉 농인은 청인과 다른 그들만의 고유한 농문화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농문화는 대부분 농 학교에서 학습이 되며, 청력 손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수화를 사용하는 것 하나로 그 문화에 동화된다(Markowicz and Woodward, 1978; Bahan, 1994).

미국의 농 연구가들은 농인과 청인을 규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청각수준의 차이가 아닌 문화적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농인을 농사회의 구성원으로 언어, 문화, 그리고 전통을 공유하면서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이며, 농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다른 농인의 생활, 행동 양식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Woodward and Allen, 1988; Padden and Humphries, 1988, 2009; Padden, 1990; Padden and Ramsey, 1993).

한국의 농 연구가들은 2002년 미국에서 개최된 Deaf Way²⁾에 참여하면서 농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이준우, 2003). 국내의 농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한국 농문화의 특성(안영회, 2004; 김경진, 2006; 류정은, 2011), 농인 혹은 농 청소년의 농문화에 대한 태도 및 정체성(이준우, 2003; 권순우·김병하, 2004; 조용순·권요한, 2009; 박동진, 2012), 농인이 소속된 사회 현장에서 의 적응 문제(이상욱·송미연, 2002; 권순우·김병하, 2004; 이달엽·하승미, 2004; 현광석, 2005; 김자경 외, 2007),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특수교사를

¹⁾ 자신의 신체 중 특징이 있는 곳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이름.

²⁾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농인 대학인 Gallaudat University에서 개최된 9,000여명의 농인과 1,000여명의 최인(수화통역사, 농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대규모 농인 행사. 농과 수화 전반에 대한 강연, 세미나, 공연, 전시 등으로 구성.

대상으로 농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김성곤, 2005: 최성규, 2005: 최정원, 2012: 박찬영·최성규, 2013)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문화와 청인문화로 구분되는 두 문화에서 농인의 문화적 응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며,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직장 혹은 학교와 같은 특정 현장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농문화에 소속되어 있지만 청인문화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농인에게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2) 문화적응 측정

문화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은 단일차원모형과 이차원모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원문화와 주류문화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단일차원모형은 두 문화가 연속선상의 양끝에 있으며, 한 쪽 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다른 문화의 특성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가정한다(Gordon, 1964). 이 모형에 기 초한 측정 도구는 두 문화에 동일시하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을 구별할 수 없으며, 문화적응의 양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Mavreas et al., 1989: Dion and Dion, 1996). 이 차원모형은 두 문화의 정체성이 독립된 형태로 개인에게 작용한다고 가정한다(Oetting and Beauvais, 1991; Berry, 2012), Berry와 그의 동료들(Berry et al., 1986; Berry, 1997; 2003; 2005; 2012; Williams and Berry, 1991; Berry and Sam, 1997; Sam and Berry, 2010)은 소수민이 문화 간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새로운 주류문화의 구성원들과 접촉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직면하게 되고, 예-아니오 대답을 통해 네 가지 문화적 응 방식으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한다. 네 가지 방식은 원문화도 유지하면서 주류문화를 받아들이는 통 합(integration). 원문화를 유지하지만 주류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리(separation). 원문화를 유지하 지 않으면서 주류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동화(assimilation). 원문화를 유지하지도 않고 주류문화도 받아 들이지 못하는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구성되어있다. 이차원모형으로 문화적응을 측정한 연구들은 문화적응 방식 중 통합이 소수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적응 방식이며. 사회문화적으로나 심리적으 로나 가장 적응적인 성과를 맺는다고 일관적으로 제안한다(정진경·양계민, 2004; 손영미·오세숙, 2011).

문화적응의 측정은 주로 이차원모형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의 원문화와 주류문화에서의 적응을 측정하도록 구성이 된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측정된 문화적응의 구성개념은 원문화와 주류문화각각에 대한 자부심 동일시와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 문화소속감(cultural involvement), 문화선호(cultural preference), 문화능숙성(cultural competence), 그리고 언어능숙성(language competence)이 있다(김은경·권정혜, 2009; Zea et al., 2003).

현재 국내 농인을 위한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문화적응과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이준우(2003)의 연구에서 농 청소년의 농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Glickman(1993; 이준우, 2003 재인용)의 농 정체성 발달 척도(Deaf Identity Development Scale: DIDS)를 Fischer(2000; 이준우, 2003 재인용)가 수정한 것을 번안·수정한 척도가 있다. 정체성은 한 사회집단에서 그 구성원 개인이 비교적 일관되게 겪는 자기에 대한 경험으로(Erikson, 1956), 문화적

응의 하위 개념이다. 문화적응은 원문화와 주류문화간 지속적인 접촉을 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심리 적·행동적 변화과정으로 정체성보다 더 많은 개념을 포괄한다. Glickman(1993: 이준우, 2003 재인용) 의 농 정체성 발달 척도는 Helms(1990)의 인종 정체성 발달 이론에 기반을 두어 이중문화 정체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척도의 하위 척도로는 청인중심 정체성, 주변 정체성, 몰입 정체성, 그리고 이중문화 정체성으로 구분되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하여 농인이 농공동체와 농문화에 어떻게 동일시하 는지를 측정한다. 농 정체성 발달 척도의 초기 연구에서는 충분한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지 만. 후속 연구에서 유사한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농인의 전반적인 문화적응 을 측정하지 못하며, 농을 병질학적으로 보는 시각이 내재되어 있으며, 청인을 향한 분노가 포함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척도는 연구 참여자가 네 가지 하위척도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체 성 유형에 할당이 되는 형태로 농인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체성 발달에 대한 변화를 측정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xwell-McCaw와 Zea(2011)의 농인 문화적응 척도(Deaf Acculturation Scales: DAS)를 국내 농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Berry 외(1986)의 문화적 응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이차원 모형을 반영한 원문화적응 주류문화적응.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는 정체성, 문화 소속감, 선호, 문화 능숙성, 그리고 언어 능숙성의 구성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의 공통요소로 추출된 구성개념과 대체로 일치한다. Maxwell-McCaw와 Zea(2011)는 미국의 농 학교인 Gallaudat University의 학생과 교직원 3,070명을 대상으로 농인 문화적응 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그들은 집단 자아존중감(collective self-esteem), 부 모의 청력상태, 학력, 그리고 자기 명명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농문화(원문화) 적응과 청인문화(주류문화)적응 하위척도가 독립적인 이차원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미국의 농문화를 배경으로 개발된 것으로, 국내 농인과 농문화에서는 그대로 이 척도를 적용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 농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을 하여 원척도와 한국판 척도 간 요인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농인을 위한 문화적응에서의 심리적·행동 적 변화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인 문화적응 척도를 국내 농인에 맞게 번안하고 문항을 보완한 후, 척도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절차

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Maxwell-McCaw와 Zea(2011)의 농인 문화적응 척도 58문항을 번안하였다. 원척도의 내용에 충실하게 번안하면서. 표현상에 공격성. 무례성. 문화적 편견과 관련된 표현은 제외하여, 52문항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대전 수화 통역센터를 통해 각 지역

에 거주하고 있는 농인에게 배부하였다. 평정 후 수거된 설문지는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 요인 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공존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농문화적응 하위척도와 청인문화적응 하위척도 각각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상관계수 행렬을 분해하는 방법으로는 공통성의 초기 추정값으로서 다중 상관자승치를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인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이용하였다.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구조를 회전하는 방법은 사각회전방법의 하나인 oblimin rotation을 이용하였다. 요인갯수의 결정에는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각 차원에 따라 추출된 요인들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였다. 요인구조가 밝혀진 하위 요인과 척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a를 산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연령, 청각장에 시기 연령, 장에 급수, 수화능력과 구화능력의 상관을 통해 공존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집단 자존감 척도(Collective Self-Esteem Scale; CSES)와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대전 수화 통역센터의 협조를 얻어 경인, 충청, 경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글을 모르거나 문항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농인에게는 일대일로 수화통역사가 수화로 설명하여 응답을 받았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설문지는 174부였으며, 무성의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한 168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85명, 여자 83명이었다. 연령, 청각장애 시기 그리고, 장애 급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3) 조사 도구

(1) 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척도

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Maxwell-McCaw와 Zea(2011)의 농인 문화적응 척도 58문항을 번안하였다. Maxwell-McCaw와 Zea(2011)의 농인 문화적응 척도는 농문화적응 하위척도와, 청인문화적응 하위척도 각 29문항으로 나누어져 있고, 문항 반응 양식은 Likert(1932)가 제안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척도의 두 하위척도와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 = 71~92 으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고하였다.

| | 연 i | 령 | 청각장애 시기 | | | | | |
|-----|-----|------|------------|----|------|----|-----|------|
| | N | % | | N | % | | N | % |
| 20대 | 23 | 13.7 | 태어날 때부터 | 22 | 13.1 | 1급 | 38 | 22.6 |
| 30대 | 35 | 20.8 | 0~ 3세 | 99 | 58.9 | 2급 | 122 | 72.6 |
| 40대 | 48 | 28.6 | 4~ 7세 | 34 | 20.2 | 3급 | 5 | 3.0 |
| 50대 | 38 | 22.6 | 7~13세 | 8 | 4.8 | 4급 | 1 | .6 |
| 60대 | 17 | 10.1 | 14~19세 | 2 | 1.2 | 5급 | 1 | .6 |
| 70대 | 7 | 4.2 | 20~ 세 | 3 | 1.8 | 6급 | 1 | .6 |

〈표 1〉 연구 참여자 연령, 청각장애 시기, 청각장애 급수

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Maxwell-McCaw와 Zea(2011)의 농인 문화적응 척도 58문항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번안되었다. 연구자 5명(심리학박사 2인, 박사과정생 3인)이 영어 에서 한국어로 1차 번안을 하였다. 연구자들은 원척도의 내용에 충실하게 번안하였으며, 문항 중에 농 인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은 순화하거나 제외하였다. 또한 '정체성'과 같은 어려운 단어 는 그 뜻을 풀어서 '자신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번안된 문항들은 이중 언어 사용자인 심리학 박 사 1인이 원문항과 번안문항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후, 학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박사과 정생 1명과 석사과정생 1명이 문장의 문법적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 쳐 완성된 문항들에 대해 표현상에 공격성, 무례성, 문화적 편견의 존재 여부를 농인 2명과 수화통역 사 2명이 검토하였다. 또한 문항을 농인에게 수화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 그들이 문항의 내용을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후 문항을 최종 수정하였다.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완성된 예비문항은 농문화적응 하위척도 26문항, 청인문화적응 하위척도 26문항이었다. 문항 반응 양 식은 원척도와 동일하게 Likert(1932)가 제안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반응을 받았으며, 1점 "전혀 그 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완 성된 설문지는 대전 수화 통역센터를 통해 배부되었다. 연구 대상자가 농인이므로 문항 중에 이해하 기 어려워하는 내용은 수화통역사가 수화로 설명을 하였다.

4) 준거 척도

본 연구에서 측정하려는 농인 문화적응은 과학적인 설명과 측정을 위하여 조작적으로 만들어낸 구 성개념(construct)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타당도를 검증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와 유사한 구성개념을 가지는 기존의 척도와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 집단 자아존중감 척도

집단 자아존중감 척도는 한 개인이 어떤 사회집단의 소속 성원으로 얼마나 만족하며 자부심을 가

지고 있는가, 타인이 자신의 집단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각 및 그 집단에 소속됨이 자신의 정체감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척도는 농인이 농문화(원문화)와 청인문화(주류문화) 중에 자신의 정체감과 문화적소속감을 더 형성하고 있는지, 두 문화 중 어느 문화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선호하는지에 대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유사한 구성개념을 가지고 있다.

연구 참여자가 소속된 집단에 대한 집단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uhtanen과 Crocker(1992) 이 개발한 집단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혜숙(1994)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집단 자아존중감 척도는 멤버십CSES, 사적CSES, 공적CSES, 정체적CSES 등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질문지는 Likert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언제나 그렇다) 이었으며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정적으로 표현한 역문항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표현하였다. 김혜숙(1994)이 타당화한 한국 집단 자아존중감 척도와 하위요인의 Cronbach's a = .60~.86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a = .85~.94 이었다.

4. 연구 결과

1) 척도의 요인구조

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예비척도 52문항을 농문화적응 하위척도 26문항과 청인문화적응 하위척도 26문항으로 구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 - Mayer - Olkin Measure)는 농문화적응이 .88이었으며, 청인문화적응이 .87이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두하위척도 모두 p<.001 이었다. 두 측정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모형인 것을 확인하였다(Tabachnick and Fidell, 2012). 스크리 도표와 해석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 농문화적응은 4요인, 청인문화적응은 5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구조를 확정하고요인부하량과 문항 간 내용을 고려하여 각 하위척도에서 한 문항씩을 제외하였다. 농문화적응에서 제외한문항은 "직장을 갖는다면, 농인들의 일터에서 일하고 싶은가요?"였고, 청인문화적응에서는 "지금보다 더 잘 들었으면 하나요?"였다. 농문화적응에서 전체 변량의 53.47%를 설명하는 4요인 25문항,청인문화적응에서 전체 변량의 56.04%를 설명하는 5요인 25문항의 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척도가 확정되었다. 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척도의 각 문항별 요인부하량은 〈표 2〉와〈표 4〉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문화적응에서 요인 1은 5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요인계수의 크기는 .61에서 .84이다. 주로 수화로 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요인 1은 '수화 능숙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요인계수의 크기는 .45에서 .79이다. 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다른 농인들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선호 정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요인 2는 '농정체성 및 농문화 선호'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6개 문항이었으며, 요인

계수의 크기는 49에서 .88이다. 농사회의 중요 인물. 단체. 그리고 수화 유행어에 대한 내용으로 농문 화에 대한 지식과 수화로 표현되는 문화적 능숙성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요인 3은 '농문화 능숙성'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계수의 크기는 .24에서 .81이다. 농인을 위한 농인에 의한 행사. 공연의 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4는 '농문화 소속감'으로 명 명하였다. 청인문화적응에서 요인 1은 4개 문항이었으며, 요인계수의 크기는 .49에서 .67이다. 요인 1 로 구성된 문항은 청인문화에 대한 생각,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청인문화 정체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7개 문항이었으며, 요인계수의 크기는 51에서 .85이다. 청인사회의 중요 인물과 사건 그리고 읽기 능력과 한글의 관용표현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요인 2는 '청인문화 능숙성'으로 명명하였다. 요 인 3은 4개 문항이었으며, 요인계수의 크기는 .83 에서 .41이었다. 구화와 글쓰기 능력에 대한 내용이 었으며, '국어 능숙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6개 문항이었으며, 요인계수의 크기는 .35에서 .61이 다. 구성된 내용은 청인들과 문화를 공유하고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청인문화 선호'로 명명하 였다. 요인 5는 4개 문항이었으며, 요인계수는 .46에서 .80이다. 청인과 문화생활을 공유하며 그 문화 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청인문화 소속감'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원 척도와 비교하여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척도의 농문화적응 하위척도는 5개 요인 으로 분류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농정체성'과 '농문화 선호'가 하나의 구성개념을 이룬다. 이는 국내 농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농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려는 기대가 미국의 농인들 보다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원척도에서는 언어 능숙성(language competence)으로 명명 된 요인이 영어능력과 구화능력으로 세분화 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어능력과 구화능력이 세분화 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원척도에 반영된 미국의 농문화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에 반영된 한 국의 농문화의 차이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원 척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농문화적응 하위척도의 패턴행렬 및 신뢰도

|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
| 요인1: 수화 능숙성 (Cronbach's α = .91) | | | | |
| 지화를 잘 하나요? | .839 | 006 | 021 | 009 |
| 다른 농인들은 당신의 수화를 잘 이해하나요? | .794 | .033 | .050 | 051 |
| 다른 사람의 지화를 잘 읽을 수 있나요? | .778 | 069 | .085 | .052 |
| 다른 사람의 수화를 잘 이해하나요? | .696 | .116 | .157 | .026 |
| 수화를 잘 하나요? | .612 | .001 | .277 | .042 |
| 요인2: 농정체성 및 농문화 선호 (Cronbach's α = .88) | | | | |
| 농인들과 함께 있으면 편한가요? | .092 | .789 | 051 | .002 |
| 농인 사회에서 어울려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043 | .734 | .092 | 078 |
| 농인 사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 080 | .729 | .036 | 039 |
| 농인이라는 사실은 자신을 아는데 중요한 부분인가요? | 091 | .632 | .038 | 030 |

| 배우자(연인)를 고른다면, 농인을 고를 것인가요? | .160 | .565 | 042 | .048 |
|---|------|------|------|------|
| 친구를 사귄다면, 가장 친한 친구는 농인인가요? | .200 | .515 | .036 | .110 |
| 농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나요? | .315 | .508 | 146 | .209 |
| 학교에 다닌다면, 농인과 같이 기숙사 방을 쓰고 싶은가요? | 132 | .468 | .035 | .234 |
| 학교에 다닌다면, 농 학교에 다니고 싶은가요? | 029 | .452 | .093 | .227 |
| 요인3: 농문화 능숙성 (Cronbach's α = 90) | | | | |
| 농인 사회에서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 .000 | .048 | .884 | 041 |
| 농인 사회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고 있나요? | 059 | 025 | .873 | .074 |
| 농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 043 | 026 | .818 | .030 |
| 농인들이 운영하는 농인을 위한 단체들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 .101 | .083 | .692 | .000 |
| 농 학교의 일반적인 전통이나 규칙을 알고 있나요? | .195 | .048 | .531 | 033 |
| 수화의 욕이나 유행어를 잘 알고 있나요? | .304 | 023 | .485 | .048 |
| 요인4: 농문화 소속감 (Cronbach's α = .76) | | | | |
| 농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나요? | 031 | 008 | 009 | .807 |
| 농인이 나오는 공연을 보는 것을 좋아하나요? | .014 | 113 | .042 | .774 |
| 농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나 모임에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 .040 | .197 | .031 | .594 |
| 농인들의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 .005 | .194 | .054 | .368 |
| 종교를 갖는다면, 농인 교회/성당/절에 다니고 싶은가요? | .220 | .224 | .007 | .243 |

〈표 3〉 농문화적응 하위척도의 요인간 상관계수

| |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
| 요인1 | (수화 능숙성) | 1.000 | | | |
| 요인2 | (농정체성 및 농문화 선호) | .288 | 1.000 | | |
| 요인3 | (농문화 능숙성) | .324 | .560 | 1.000 | |
| 요인4 | (농문화 소속감) | .555 | .303 | .271 | 1.000 |

2) 척도의 신뢰도

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차원과 하위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를 산출하였다. 농문화적응 하위척도의 Cronbach's a는 .93이며, 하위 요인은 .76에서 .91이었다. 청인문화적응 하위척도의 Cronbach's a는 .93이며, 하위 요인은 .82에서 .90이었다. 이는 기준인 .70이상(DeVellis, 2011)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한국판 농인 문화적 응 척도가 신뢰로운 척도인 것을 확인하였다.

〈표 4〉 청인문화적응 하위척도 패턴행렬 및 신뢰도

|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
| 요인1: 청인문화 정체성 (Cronbach's α =.80) | | | | | |
| 청인사회에서 어울려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669 | .105 | .094 | 028 | 002 |
| 청인들과 함께 있으면 편한가요? | .644 | .022 | 018 | .065 | .131 |
| 청인사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 .589 | 027 | .026 | .194 | 042 |
| 청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나요? | .486 | .144 | 074 | 031 | .390 |
| 요인2: 청인문화 능숙성 (Cronbach's α =.90) | | | | | |
| 한국사나 세계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알고 있나요? | .083 | .851 | 037 | .167 | 099 |
| 청인들이 보는 유명한 신문, 잡지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 088 | .832 | 036 | .101 | .066 |
| 유명한 청인 배우들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 088 | .776 | .019 | .093 | .091 |
| 청인 사회에서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 .142 | .767 | 070 | .144 | 019 |
| 우리나라 위인들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 .085 | .649 | 048 | .013 | 019 |
| 글을 잘 읽나요? | .203 | .522 | .313 | 301 | .041 |
| 한글의 관용표현을 잘 알고 있나요? | 048 | .507 | .221 | 218 | .128 |
| 요인3: 국어 능숙성 (Cronbach's α = .84) | | | | | |
|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나요? | .038 | 088 | .861 | .111 | 125 |
| 청인들은 당신이 소리 내서 하는 말을 잘 이해하나요? | 006 | 117 | .835 | .057 | .105 |
| 구화를 잘 하나요? | 075 | .145 | .711 | .011 | .015 |
| 글을 잘 쓰나요? | .349 | .344 | .434 | 312 | .023 |
| 요인4: 청인문화 선호 (Cronbach's α = 85) | | | | | |
| 배우자(연인)를 고른다면, 청인을 고를 것인가요? | .099 | .165 | .099 | .606 | 009 |
| 친구를 사귄다면, 가장 친한 친구는 청인인가요? | .127 | .209 | .115 | .593 | .091 |
| 학교에 다닌다면, 청인 학교에 다니고 싶은가요? | .177 | 043 | .145 | .488 | .250 |
| 직장을 갖는다면, 청인들의 일터에서 일하고 싶은가요? | 032 | .195 | 038 | .469 | .170 |
| 학교에 다닌다면, 청인과 같이 기숙사 방을 쓰고 싶은가요? | .186 | .053 | .224 | .419 | .150 |
| 종교를 갖는다면, 청인 교회/성당/절에 다니고 싶은가요? | .172 | .043 | .240 | .354 | .102 |
| 요인5: 청인문화 소속감 (Cronbach's α =.82) | | | | | |
| 청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나요? | 170 | .029 | 022 | .079 | .796 |
| 청인이 나오는 공연을 보는 것을 좋아하나요? | .266 | .040 | .042 | 038 | .626 |
| 청인들의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 .405 | .088 | 052 | .008 | .556 |
| 청인들의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 .138 | 051 | .091 | .155 | .459 |

| |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 | | |
|----------------|------------|-------|-------|-------|-------|-------|--|--|--|--|
| 요인1 | (청인문화 정체성) | 1.000 | | | | | | | | |
| 요인2 | (청인문화 능숙성) | .245 | 1.000 | | | | | | | |
| 요인3 | (국어 능숙성) | .142 | .306 | 1.000 | | | | | | |
| 요인4 | (청인문화 선호) | 398 | .389 | 156 | 1.000 | | | | | |
| <u></u> 요인5 | (청인문화 소속감) | 262 | .338 | 413 | .264 | 1.000 | | | | |

〈표 5〉 청인문화적응 하위척도의 요인간 상관계수

3) 척도의 타당도

개발된 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농인문화적 응 25문항과 청인문화적응 25문항 각각의 점수와 연구에 참여한 농인, 청각장애시기, 청각장애 급수와의 상관을 분석하였으며,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한 구성개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 자아존중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공존타당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연령, 청각장애 시기 연령, 청각장애 급수, 수화능력과 구화능력의 상관을 살펴보았다(김은경과 권정혜, 2009; Maxwell-McCaw and Zea, 2011). 그 결과, 농문화적응은 청각장애 시기(r=-.23, p<.01), 청각장애 급수(r=-.23 p<.01)와 구화능력은 (r=-.16, p<.05)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수화능력(r=.68, p<.0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청인문화적응은 연령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r=-.62, p<.01), 수화능력(r=.25, p<.01)과 구화능력(r=.54, p<.001)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청인문화적응이 높은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젊은 농인은 일터 혹은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인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나이가 많은 농인보다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각장애시기와 청각장애 급수는 청인문화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구화의 경우 농문화에서 구화를 사용하면 청인처럼 행동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농문화적응과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청인문화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

〈표 6〉 농인 문화적응 척도 점수와 관련 변인의 상관

| | 연 령 | 청각장애 시기 | 장애 급수 | 수화능력 | 구화능력 |
|--------|------|------------|-------|--------|--------|
| 농문화적응 | .12 | 23** | 23** | .68*** | 16* |
| 청인문화적응 | 26** | 01 | .14 | .25** | .54*** |

^{*}p<.05, **p<.01, ***p<.001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척도는 각 문화의 문화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변인들과의 상관이 대체로 유의미하였으며, 모든 변인에서 일관적으로 구별되는 양 상을 나타내고 있는바, 공존타당도를 지지하였다(표 6).

(2) 구성타당도

개발된 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사한 구성개념을 가지고 있 는 집단 자아존중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만일 개발된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높다면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집단 자아존중감 척도와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농문화적응과 집단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67, p<.001). 청인문화적응 과 집단 자아존중감 또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지만, 농문화적응과 비교하면 상관 계수는 낮 은 값이었다(r=.18, p<.05). 각 하위 요인과 집단 자아존중감을 상관 분석을 한 결과. 농문화적응에서 는 모든 요인(요인1: 수화능숙성, 요인2: 농정체성 및 농문화 선호, 요인3: 농문화 능숙성, 요인4: 농 문화 소속감)과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인문화적응에서는 청인문화 능숙성 으로 명명된 요인2를 제외하고는 상관 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7).

| ⟨₩ 7⟩ | 한국판 농인 | 무하전은 | 천도와 | 진다 | 지조간 | 천도와의 | 산과부선 | 격과 |
|-------|---------|------|-----|-------|---------------------|------|------|----|
| \4 1/ | 7147101 | 그되극이 | ーーー | H 1 ' | $\gamma_1 - \alpha$ | ーエーー | | 24 |

| 농문화적응 | | | | 청인문화적응 | | | | | |
|-----------|--------|--------|--------|--------|-----|--------|-----|-----|-----|
|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 집단 자존감 | .45*** | .62*** | .45*** | .51*** | .14 | .35*** | 01 | .02 | .11 |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 측정한 집단 자아존중감은 농인이 농문화에 소속된 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감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측정하였으므로. 청인문화적응과 낮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데 구성타당도를 입증하 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청인문화 능숙성과 집단 자존감이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것은 농인들이 농문화에 소속되어 있지만 주류문화인 청인문화를 완전히 배제하여 살 수 없기 때문에 청인 문화에도 적응하여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Maxwell-McCaw와 Zea(2011)가 개발한 농인 문화적응 척도를 국내 농인에 맞게 번안하여 척도의 요인구조,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Maxwell-McCaw와 Zea(2011)의 농인 문 화적응 척도는 문화적응의 이차원 모형을 바탕으로 원문화(농문화)적응, 주류문화(청인문화) 적응으 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번안한 척도 또한 동일하게 두 하위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두 하위척도 각 각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농문화적응에서는 4개 요인이 추출이 되었으며, 각 요인은 수화능숙성, 농정체성 및 농문화 선호, 농문화 능숙성. 그리고 농문화 소속감으로 명명하였다. 청인문화적응에서는 5개 요인이 추출이 되었으며, 각 요인은 청인문화 정체성, 청인문화 능숙성, 국어 능숙성, 청인문화 선호, 청인문 화 소속감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척도는 원척도와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원척도의 농 문화적응은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농정체성과 농문화 선호가 하나의 구성개념을 이룬다. 이는 국내 농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농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려는 기대가 미 국의 농인들 보다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청인문화적응에서 원척도에서는 언어 능숙성으로 명명된 요인이 영어능력과 구화능력으로 세분화 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어능력과 구 화능력이 세분화되지 않았다. 미국의 농인 중에는 구화만을 사용하는 농인이 있는데 반해. 국내 농문 화에서는 구화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문화에 소속되는 것을 배척하고 청인으로 여기려하는 현상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차이를 제외하면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척도는 원척도 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은 원척도에 반영된 미국의 농문화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에 반영된 한국의 농문화의 차이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수화(American Sign Language; ASL)는 하나의 완전한 언어로, 농문화에 소속된 농인은 언어 적 소수집단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농인 중 70%는 농인 자녀를 갖기를 원할 정도로 농문화에 높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Markowicz and Woodward, 1978).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문화를 외 부에서나 내부에서나 아직은 병질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농인들의 농문화 소속감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난다.

농문화적응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93, 청인문화적응 하위척도는 .93으로 나타났다. 농문화적응에서 농문화 소속감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76으로 원척도와 비교하여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것 또한 원척 도가 개발된 미국과 국내 농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화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변인들과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농문화적응은 청각장애 시기, 청각장애 급수, 그리고 구화능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수화능력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청인문화적응은 연령과 부적 상관관계이었는데, 이는 젊은 농인은 일터 혹은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인들과 상호작용을 불가피한 경우가 연령이 높은 농인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화능력과 구화능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인문화적응과 수화능력 간 상관계수는 농문화적응과의 상관계수보다 작은 값이었고 구화능력은 농문화적응과의 상관계수보다 청인문화적응의 상관계수가 더 컸기 때문에, 수화능력은 농문화적응과 관련이 더 높고 구화능력은 청인문화적응과 관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문화에서 구화를 사용하면 청인처럼 행동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농문화적응과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청인문화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 자아존중감과 농문화적응과 청인문화적응 간 상관분석을 하였다, 집단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그에 결부된 정서와 감정에 근거한 자아 개념으로, 문화적응의 개념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김혜숙, 1994). 분석 결과, 집단 자아존중감

은 농문화적응. 청인문화적응 간 상관계수는 유의미하였으나. 농문화적응과 비교하면 청인문화적응과 의 상관계수는 작은 값이었다. 각 하위 요인과 집단 자이존중감을 상관 분석을 한 결과. 농문화적응에 서는 모든 요인들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인문화적응에서는 청인문화 능숙성을 제외하 고는 상관 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인문화 능숙성과 집단 자존감이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것은 농 인들이 농문화에 소속되어 있지만 주류문화인 청인문화를 완전히 배제하여 살 수 없기 때문에 청인문 화에도 적응하여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농인 문화적응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적절하게 나타나 농인의 문화적응 양상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척도를 번안할 때 국내 농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였다. 워척도의 경우 미국의 농인들은 농문화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주류문화 중 일부에 자신들의 농문화가 녹아져 있다는 것(예. 야구 심판의 싸인)을 자랑 으로 여긴다(Gannon, 1981; Glickman, 1993; Fischer, 2000). 이와는 반대로 국내에서는 아직 농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고 병질적으로 보는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농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을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농인 문화적응에 보다 민감 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지필과제로, 단어나 글을 모르는 농인에게 수화 통역사 없이는 응답을 받기가 어렵다. Glickman은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어린 연령층의 농인의 설문 을 받기 위하여 농 정체성 척도의 모든 문항의 수화를 녹화하였다(Zea et al., 2003; Maxwell-McCaw and Zea, 2011). 차후 국내에서도 수화통역사가 없는 상황에서 설문을 하게 된다면 이와 유사한 방법 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에서 농인과 농문화에 대한 연구는 질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를 측정하는 척 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문화적응적 관점에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측정 하였다. 농인은 같은 사회에 살고 있지만 다른 언어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자신들의 농문화와는 다른 청인문화에 접촉하여 살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응적 관점은 농인의 적응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척도는 농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심리치료, 정신건 강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문화시설 지원정책의 방향성 제시하고 양질의 적응 프로 그램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주해. 2002.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 서울: 농아사회정보원.

권순우·김병하, 2004. "농학교 졸업 후 청각장애인의 직업 적응 정도와 근로조건에 대한 연구", 5(1): 229-251.

김경진, 2006, "한국의 농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곤, 2005, "농 학교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농 학교의 농 문화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김순옥, 2007,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 요인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권정혜, 2009, "탈북자 문화적응척도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761-781.
- 김자경·김주영·김남진, 2007, "청각장애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불안, 우울, 그리고 학교적응 간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9(4): 231-247.
- 김현철 · 권재희 · 윤병천 · 장명희 · 한연미 · 한영희, 2012, "The 쉽고, 재미있는 수화』, 파주: 양서원,
- 김혜숙, 1994,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103-116,
- 류정은, 2011. "수화 이야기에 나타나는 유형과 농문화 특성".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동진, 2012,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 박찬영·최성규, 2013, "원적학급 교사의 농문화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15(1): 89-108
- 손영미·오세숙, 2011,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여가 연구동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1(1): 76-102,
- 안영회, 2004, "한국 농인사회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달엽·하승미, 2004, "청각장애 근로자의 인사관리자의 직업 적응에 관한 인식 연구", 『직업재활연구』, 14(2): 89-117.
- 이상욱·송미연, 2002, "수화통역서비스가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2(2): 213-242,
- 이준우, 2003, "한국 농(聾) 청소년의 농(聾) 정체성과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조용순·권요한, 2009, "농인의 농문화에 대한 태도와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특수아동교육 연구』, 11(1): 263-284,
- 최성규, 2005,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농문화에 대한 종단적 태도 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1): 57-76.
- 최정원, 2012, "사회복지사와 일반인의 농 문화 인식 정도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광석, 2005, "특수체육: 청각장애아와 정신지체아의 과외스포츠활동과 사회적 적응능력의 관계", 『한국 사회체육학회지』, 25(1): 563-571.
- Bahan, B., 1994, "Comment on turner: A veiw from the deaf world", Sign Language Studies, 84(1): 241-249.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17-37, in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edited by Chun, K. M., Balls Organista, P., and Marín, 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 Berry, J. W., 2012, "Integration as a mode of immigrant acculturation", 41-57 in U. S. *Immigration and Education: Cultural and Policy Issues Across the Lifespan*, edited by Grigorenko, E. L., New York: Springer.

- Berry, J. W., and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207-236, in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 Applications. Cross-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eries, edited by Dasen, P. R., Berry J. W., and Sartorius, N., Thousand Oaks: Sage.
- Berry, J. W., and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291-326, i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 edited by Berry, J. W., Poortinga, Y. H., and Pandey, J., Needham Heights: Allyn and Bacon.
- Berry, J. W., Trimble, J. E., and Olmedo, E. L., 1986, "Assessment of acculturation", 291-324, in Field Methods in Cross-Cultural Research, edited by Lonner, W. J., and Berry, J. W., London:
- DeVellis, R. F., 2011,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London: Sage,
- Dion, K. L., and Dion, K. K., 1996, "Chinese adaptation to foreign culture", 457-478, in The Handbook of Chinese Psychology, edited by Bond, M. H.,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Erikson, E., 1956, "The problem of ego-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 56-121.
- Fischer, L. C., 2000, Cultural identity development and self concept of adults who are deaf: A comparative analysis, Arizona Stat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Gannon, J. R., 1981, Deaf Heritage A Narrative History of Deaf America, Maryland: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 Glickman, N. S., 1993, Deaf identity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theoretical model, University of Massachusetts Doctoral dissertation,
- Gordon, M.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elms, J. E., 1990, Black and White Racial Identit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Greenwood.
- Likert, R., 1932, "A technique for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Archives of Psychology, 22(140): 55.
- Luhtanen, R., and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3): 302-318,
- Markowicz, H., and Woodward, J., 1978, "Language and the maintenance of ethnic boundaries in the deaf community", Communication and Cognition Ghent, 11(1): 29-37.
- Mavreas, V., Bebbington, P., and Der, G., 1989, "The structure and validity of acculturat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4(5): 233-240,
- Maxwell-McCaw, D. L., and Zea, M. C., 2011, "The deaf acculturation scale (DA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58-item measure",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6(3): 325-342,
- Oetting, E. R., and Beauvais, F., 1991, "Orthogonal cultural identification theory: The cultural identification of minority adolescents", Substance Use and Misuse, 25(5-6): 655-685,
- Padden, C., 1990, "The deaf community and the culture of deaf people", 40-45, in Constructing Deafness, edited by S. Gregory, and G. M. Hartley, New York: Continuum.
- Padden, C., and Humphries, T., 1988, Deaf in America: Voices from a Culture, Cambridge: Harvard

- University Press.
- Padden, C., and Humphries, T., 2009, Inside Deaf Cul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dden, C., and Ramsey, C., 1993, "Deaf culture and literacy",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38(2): 96-99.
- Sam, D. L., and Berry, J. W., 2010, "Acculturation when individuals and group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mee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4): 472-481.
- Tabachnick, B. G., and Fidell, L. S., 2012,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Boston: Pearson.
- Williams, C. L., and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
- Woodward, J., and Allen, T., 1988, "Classroom use of artificial sign systems by teachers", Sign Language Studies, 61(1): 405-418.
- Zea, M. C., Asner-Self, K. K., Birman, D., and Buki, L. P., 2003, "The abbreviated multidimentional acculturation scale: empirical validation with two Latino/Latina sampl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2): 1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for Korean Version of Deaf Acculturation Scale

Eum, Youngji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rk, Jieu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ohn, Sunju (Cheongju University) Eom, Jinsup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ohn, Jinhu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Korean version of Deaf Acculturation Scales(DAS). Pilot items were made a faithful translation of the Acculturation Scales of Maxwell-McCaw and Zea (2011) and were modified for Korean Deaf people. The Scale involves two dimensions, in order to measure the acculturation of Deaf people; Deaf acculturation and hearing acculturation. Using factor analysis, we developed a Korean version of DAS consisted of twenty-five items for Deaf acculturation dimension and twenty-five items for hearing acculturation dimension. These analysis supported the four factors of Deaf acculturation dimension and the five factors of hearing acculturation dimension. Reliability, assessed by Cronbach's a, was .93 for Deaf acculturation and .93 for hearing acculturation, respectively, which confirm the Koran version of DAS. demonstrated with Construct validity through correlation Deaf acculturation-related variables: age, age of Deafness, Degree of hearing loss, American Sign Language ability, and lip-reading ability. Criterion validity was supported by correlation with Collective Self-Esteem Scale. Limitation and implication of this study and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deaf, hearing impairment, deaf culture, acculturation, Deaf Acculturation Scale, scale validation

[논문 접수일 : 14. 03. 18, 심사일 : 14. 04. 09, 게재 확정일 : 14. 06. 03]